

말레이시아 : 2025년 비자 정책 변화가 해외 취업 청년에게 주는 시사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말레이시아

홍성아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박사과정)

■ 머리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Move로 취업한 인원은 2013년 1,607명에서 2024년 5,72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¹⁾ 말레이시아는 다국적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해외 취업은 경력 개발과 국제적 경험이라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체류의 전제 조건인 비자 정책은 개인의 경력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경영학에서 부상한 장기 체류 주재원 개념을 살펴보고, 말레이시아 주요 비자 제도와 변화를 개괄한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층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25년 경영학이 주목한 용어 : 장기 체류 주재원

최근 경영학 분야에서는 체류 기간별로 주재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논의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 주재원은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단기로 근무하며 체류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인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단기”의 시간적 기준이 모호하고, 시

1) 한국산업인력공단(2025), “한국산업인력공단_해외취업 통계정보”, <https://www.data.go.kr/> (2026.1.14).

민권 없이 특정 국가에 장기간 체류하며 근무하는 주재원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²⁾ 과거의 경영학 연구는 기업이 파견한 주재원을 주로 다루었지만, 2000년대 이후 자발적 주재원(self-initiated expatriate) 개념이 등장하면서 주재원의 유형은 더욱 다양해졌다. 나아가 2020년대에 들어 코로나19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비자 정책 변화 등으로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주재원을 구분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하 근무자를 단기 체류 주재원, 10년 이상 근무자를 장기 체류 주재원으로 분류한다. 2025년 연구에서는 장기 체류 주재원을 다시 세분화해 한 국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재원을 인터네셔널 장기 체류 주재원(international long-term expatriate)으로, 두 개 이상 국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글로벌 장기 체류 주재원(global long-term expatriate)으로 구분했다.³⁾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인터네셔널 장기 체류 주재원은 특정 국가에 장기간 정착한 만큼 체류국의 비자 제도 등 거시적·구조적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⁴⁾ 체류 기간에 따른 주재원 구분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재원 구분

구분	체류 기간	특징
단기 체류 주재원 (Short-term expatriate)	12개월 이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주재원
장기 체류 주재원 (Long-term expatriate)	10년 이상	동일 국가 혹은 여러 국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재원
인터네셔널 장기 체류 주재원 (International long-term expatriate)	10년 이상	한 국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재원
글로벌 장기 체류 주재원 (Global long-term expatriate)	10년 이상	2개 이상 국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재원

자료: Selmer, J., M. Shaffer, S. Jooss, and B. S. Reiche(2025), "A Typology of Long-term Expatriates: Conceptualization, Consequences and Future 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35(2), pp.1~14.

2) Selmer, J., M. Shaffer, S. Jooss, and B. S. Reiche(2025), "A Typology of Long-term Expatriates: Conceptualization, Consequences and Future 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35(2), pp.1~14.

3) *ibid.*

4) Hong, S., C. Richardson, and N. F. A. Rahim(2025), "It Was Only Supposed to Be Temporary: Exploring Assigned Expatriates' Decision to Becoming Long-term Migrants in Their Host Country", *Journal of Global Mobility: The Home of Expatriate Management Research*, 13(2), pp.240~269.

■ 말레이시아 비자 제도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을 규율하는 주요 법령은 1959년 이민법(Immigration Act 1959, 법률 제155호)과 1963년 이민 규정(Immigration Regulations 1963)이다. 이민법 제6조 제1항 (c)에 따르면 외국인은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해 유효한 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 1963년 이민 규정은 이민국장에게 취업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체류 자격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⁵⁾ 이 두 법령은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법적 기반을 이룬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로 외국인은 크게 취업 및 사업과 투자이민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한다. 취업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 비자는 크게 취업비자(Employment Pass I, II, III)와 우수 인재 거주비자(RP-T)로 구성된다. 취업비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월 소득 1만 링깃 이상인 경우 I 등급, 5,000~9,999링깃은 II 등급, 3,000~4,999링깃인 경우 III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주재원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취업비자 I, II 등급 소지자다.

경영학에서는 주재원을 기업이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한 파견 주재원(assigned expatriate)과 개인의 선택으로 해외 취업한 자발적 주재원(self-initiated expatriate)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파견 주재원은 경력이 풍부하고 본사의 지식과 기술을 해외법인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급여 수준이 높으며, 이들은 대체로 취업비자 I 등급에 해당한다. 반면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 청년층은 주로 취업비자 II 등급에 속한다.

말레이시아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월 급여 1만 5천 링깃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간 유효한 우수 인재 거주비자(RP-T)를 취득할 수 있다. RP-T는 취업비자와 달리 사용자 변경이나 창업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 장기 근무를 계획하는 파견 주재원이 전환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체류 경로로 평가된다.

투자이민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MM2H)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제도는 디지털 노마드, 전문직 종사자,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은퇴를 고려하는 외국인에게도 인기 있는 선택지로 평가된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구매가 의무라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MM2H는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실버 등급(5년 체류)은 말레이

5) Lexology, "Build Your Career in Malaysia: Employment Passes & Work Permits", 2025.8.26.

<표 2> 말레이시아 비자 제도

구분	비자 유형	주요 요건	체류 기간	주요 특징	대상자
고용 비자	취업비자 I (Employment Pass I)	월 소득 1만 링깃 이상	5년 (갱신 가능)	고소득 전문인력	파견 주재원
	취업비자 II (Employment Pass II)	월 소득 5,000~9,999링깃	2년 (갱신 가능)	중간 전문직	자발적 주재원
	취업비자 III (Employment Pass III)	월 소득 3,000~4,999링깃	12개월 (최대 2회 갱신 가능)	단기 근무자	단기 체류 및 자발적 주재원
	우수 인재 거주비자 (Resident Pass-Talent)	말레이시아에서 3년 이상 근무, 월 소득 1만 5천 링깃 이상	최대 10년 (갱신 가능)	사용자 변경 및 창업 가능	파견 주재원
투자 이민 비자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Malaysia My Second Home)	등급별 예치금 및 주택 구입	5~20년 (등급별 상이)	디지털노마드, 고액자산가, 은퇴자	장기 거주 희망 외국인
	프리미엄 비자 프로그램 (Premium Visa Programme)	연 소득, 신청 수수료, 예치금	최대 20년	높은 재정 요건	장기 거주 희망 고소득층, 투자자

자료: Conde Nast Traveler, “Malaysia Just Launched Another Golden Visa”, 2025.10.30; Lexology, “Build Your Career in Malaysia: Employment Passes & Work Permits”, 2025.8.26; Fulcrum, “Can Malaysia My Second Home(MM2H) Recover Its Lost Ground?”, 2025.8.15.

시아 금융기관에 15만 달러의 정기에금을 예치하고, 60만 링깃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골드 등급(15년 체류)은 예치금 50만 달러와 100만 링깃 이상의 주택 구매를 요구하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20년 체류)은 예치금 100만 달러와 200만 링깃 이상의 주택 구입이 필수다.

2022년 도입한 프리미엄 비자 프로그램(PVIP)은 최대 20년 체류가 가능하며 현지 취업과 투자가 허용되지만, 연간 48만 링깃 이상의 소득, 20만 링깃의 신청 수수료, 그리고 현지 은행에 100만 링깃의 정기에금 계좌 개설 등 상당히 높은 재정 조건을 요구한다.⁶⁾

■ 2025년 말레이시아 비자 제도 변화

취업비자 기회와 한계

말레이시아는 2025년 3월 1일부터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기존의 스티커 부착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 허가증(ePASS)으로 전환했다.⁷⁾ 기존에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비자 갱신 신청에만

6) Conde Nast Traveler, “Malaysia Just Launched Another Golden Visa”, 2025.10.30.

7) Corporate Immigration Partners, “Malaysia: Xpats Gateway Streamlines Employment Pass

ePASS 시스템을 적용했으나, 이를 신규 신청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⁸⁾ 이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신규 신청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5년 2월 중순 시범 도입된 “1:3 인턴십 정책(1:3 Internship Policy)”은 취업비자 갱신과 장기 근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2025년 2월 15일부터 연말까지 해당 정책을 시범운영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은 승인된 취업비자 수에 비례해 말레이시아 내국인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⁹⁾ 대상은 다국적 기업, 정부 연계 기업 등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이민국 외국인 서비스 부서에 등록된 기업이다. 취업비자 등급에 따라 I 등급 승인 1건당 3명, II 등급 승인 1건당 2명, III 등급 1건당 1명의 인턴십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¹⁰⁾ 다만 인턴 채용 규모는 전체 직원 수의 최대 2%를 상한으로 한다.¹¹⁾

1:3 인턴십 정책은 내국인 역량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에 추가적인 인건비 및 관리 부담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취업비자 소지자의 장기 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고소득 파견 주재원의 경우 1:3 인턴십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RP-T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월 소득이 1만 링깃 이하인 취업비자 II 소지자는 비자 갱신 외에는 대안이 제한적이다. 이는 중간 소득 수준의 해외 취업자일수록 장기 체류와 경력 지속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 투자 비자 제도 신설

2025년 4월 말레이시아는 단기 투자 비자 제도를 신설해 외국인 투자자와 사업가 유치에 나

Steps”, 2025.7.14.

8) Newland Chase, “MALAYSIA - Expansion of ePASS System”, 2025.2.24.

9) Human Resources Online, “What You Should Know about the Upcoming 1:3 Internship Policy in Malaysia”, 2025.1.28.

10) Free Malaysia Today, “New Policy Mandates 3 Internships for Locals per Expat Employee”, 2025.1.15.

11) KPMG, “Malaysia - Updates on New Immigration Policies and Processes”, 2025.2.6.

서고 있다. 이른바 “골든 비자”로 불리는 투자자 비자(Investor Pass)를 처음 도입해 최대 12개월 체류를 허용했다. 투자자 비자는 제조업,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서비스업 등 핵심 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여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다. 고정된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은 없으며, 최근 은행 거래 내역서, 범죄 경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투자자 비자의 신설은 기존의 장기 투자이민 비자 외에 단기 투자이민 경로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투자자 비자는 PVIP나 MM2H처럼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 동반 없이 단기간 단신 체류하며 사업 기회를 탐색하려는 투자자와 사업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즉 장기 투자이민 제도를 대체하기보다는 초기 시장 진입과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완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기존 투자이민 비자의 낮은 수요와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도 맞닿아 있다. 2022년 도입된 PVIP는 최대 20년 체류 등 유연성이 확보되지만, 월 소득 요건과 예치금 등 높은 재정 요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24년 기준 PVIP 신청자는 47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1단계 목표였던 2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PVIP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¹²⁾

또 다른 투자이민 제도인 MM2H도 2020년대 들어 수요가 낮아지고 있다. MM2H는 1987년 실버 헤어 프로그램(Silver Hair Programme)을 전신으로 하는 은퇴 비자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4만 8,471명을 유치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2022년 PVIP 신설, 2023년 부동산 구매가와 예치금 기준 대폭 상향 등 요건이 강화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존 비자 소지자 중 1,461명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했고 신규 신청자 역시 267명에 그쳤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한 고비용 투자이민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여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으로 단기간 체류하며 사업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투자자 비자를 새롭게 신설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2) Free Malaysia Today, “Premium Visa Programme Attracts Just 47 People”, 2024.3.29.

13) Fulcrum, “Can Malaysia My Second Home(MM2H) Recover Its Lost Ground?”, 2025.8.15.

■ 맺음말

2025년 말레이시아의 비자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주된 관심은 ▲신규 채용 주재원에 대한 행정 처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외국인 인력과 현지 인력 간 비율 조정,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투자 및 창업 인력 유치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대 12개월 이내 체류하는 단기 주재원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ePASS 도입과 단기 투자자 비자 신설은 신규 유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MM2H의 부동산 구매 의무 강화, 고액 자산가 중심의 PVIP, 단기 투자자 비자 신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자본, 투자, 창업 역량을 보유하며 직접적인 경제 기여도가 높은 집단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인 노동력 전반에 대한 개방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명확한 대상에 집중하는 선택적 개방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취업비자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 주재원 역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적 관심 대상이지만, 그 초점은 신규 채용 단계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집단은 중위 소득 집단인 취업비자 II 소지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RP-T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투자이민 제도의 수혜 대상에도 포함되기 힘들어 장기 체류와 경력 지속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자발적 주재원은 경력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여행, 새로운 문화 경험 등 경력 이외의 동기를 함께 지닌 경우가 많다.¹⁴⁾ 이러한 점에서 2025년 비자 개편은 말레이시아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취업을 준비하는 해외 청년을 위해서는 단기 취업 가능성에만 주목하기보다 비자 갱신 요건과 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경력 경로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KLI**

14) Doherty, N.(2013), "Understanding the Self-initiated Expatriate: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5(4), pp.447~469.